

對중국 및 對ASEAN 투자동향 분석

(2021. 10.)

목 차

I. 개요

II. 세계의 對중국 투자 증가요인

III. 우리나라의 對중국 투자 감소요인

IV. 우리나라의 對ASEAN 투자 증가요인

V. 향후 전망

해 외 경 제 연 구 소

지 식 경 제 팀

I. 개요

- **[세계 해외투자]** 팬데믹으로 '20년 세계 해외직접투자(이하 "FDI")는 전년 대비 35% 감소한 1조불로 급감했으나, 對중국 투자는 증가
- '20년 對중국 FDI는 오히려 전년대비 6% 증가하였으며, 세계 1위 투자대상국인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투자 유입 기록

중국·미국 FDI 유입 추이

(억불)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세계	20,323	20,652	16,473	14,367	15,302	9,989
중국	1,356	1,337	1,363	1,383	1,412	1,493
미국	4,676	4,594	2,953	2,234	2,614	1,563

- **[우리나라 해외투자]** 세계적인 對중국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20년 對중국 투자는 감소한 반면, 최근 수년간 對ASEAN 투자는 증가세
- 對중국 FDI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다, '20년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22.4% 감소하였으며, 전체 FDI 대비 비중도 하락(9.0%→8.0%)
 - 對ASEAN FDI는 뚜렷한 증가세로 '20년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전체 FDI 대비 비중은 상승(15.4%→17.3%)

우리나라의 對중국·對ASEAN FDI 추이

(억불)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전체	304	403	449	514	644	566
중국	30	34	32	48	58	45
ASEAN	44	53	53	66	99	98

-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의존도*는 25% 내외를 시현, 對ASEAN 수출의존도**는 지속적인 상승세 기록

* 對중국 수출의존도 추이: ('05년) 21.8%→('10년) 25.1%→('15년) 26.0%→('20년) 25.9%

** 對ASEAN 수출의존도 추이: ('05년) 9.6%→('10년) 11.4%→('15년) 14.2%→('20년) 17.4%



세계의 對중국 투자 증가요인, 우리나라의 對중국 투자 감소요인 · 對ASEAN 투자 증가요인에 대한 분석 필요

Ⅱ. 세계의 對중국 투자 증가요인

- ❖ 중국 정부의 내수 진작, 신속한 팬데믹 통제, 투자환경 개선 등에 힘입어 세계의 對중국 투자 유입 증가 지속

①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성장

- **[쌍순환 전략 도입]** 중국 정부는 '20년 5월 '쌍순환 전략'을 제시, '국내 순환'과 및 '국제 순환'의 상호 연계 추구
 - 이는 외부 불확실성에 대응, 견실한 내부경제 구축을 목표로 중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수출에서 내수로 이전하는 전략
 - 내수 진작*으로 '20년 중국은 미국을 상회하는 소매판매 규모**를 실현하는 등 최대 소비시장으로 등극하여 투자 유인이 증가
 - *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텐진, 충칭의 5개 도시를 소비 중심도시로 육성 등
 - ** 중국 5.68조불, 미국 5.59조불
- **[고급 소비재 판매 증가]** 중국內 전기차, 고가 화장품 등의 고급 소비재 판매가 증가하여 다국적기업은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경쟁적으로 투자 확대*
 - * '19년 12월 독일 폭스바겐社는 중국 전기차 기업에 21억유로 투자
 - '20년 9월 프랑스 클라란스社는 중국 상하이에 최초의 해외 연구소 설립
- 특히, 중국 정부는 내국인면세점 육성으로 고급 소비재 수요를 내수시장에서 소화되도록 유도

② 팬데믹 확산세 통제에 따른 경제 성장

- **[코로나-19 방역 성공]** 중국은 초기 고강도 방역 및 델타 변이 바이러스 조기 통제 등에 따라 빠른 경기 회복세 실현

- '20년 주요국 중 유일하게 양(+)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1년 경제성장률은 8.5%로 전망됨(세계은행 발표).

* '20년 주요국 경제성장률: 미국 △3.5%, 중국 2.3%, 유로존 △6.7%, 한국 △1.0%

중국의 분기별 GDP 성장률 추이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전년동기 대비	5.9	5.8	△6.8	3.2	4.9	6.5	18.3	7.9
전 분 기 대 비	1.2	1.5	△8.7	10.0	2.8	3.0	0.4	1.3

- 수요 회복, 공산품 가격 상승, 조업인원 및 조업일수 증가 등으로 생산활동이 정상화되고 제조업 이익이 증가하여 투자 유인 확대

③ 중국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20년 외국인투자 법령 정비를 통해 자국기업과 외국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목표로 외국인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축소*하는 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 금융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지분율 규제 폐지 등

- 지속적인 투자개방 정책으로 최근 2년 연속 세계은행이 선정한 기업환경 개선 폭이 큰 10개국에 선정*

* '20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순위: 한국 5위, 미국 6위, 일본 29위, 중국 31위

- **[지적재산권 보호]** 첨단기술산업 투자의 저해요인이었던 취약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무역협정*, 법제 보완** 등을 통해 강화

* '20년 2월 '미국-중국 무역협정'에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명시

** '19년 중국 최고인민법원에 지식재산권 법정 설립

- 자국기업 보호와 동시에 외국 첨단기술 적극 유치 노력

III. 우리나라의 對중국 투자 감소요인

- ❖ 중국의 생산비용 증가, 한한령 등에 따라 우리기업의 중국내 경영 환경이 악화되어 對중국 투자 유인 감소 및 탈중국 현상 발생

① 생산거점으로서의 중국 역할 축소

- **[노동력 경쟁우위 저하]** 중국의 15~64세 인구 비중*은 '10년 이후 감소세이며, 제조업 임금** 역시 ASEAN 대비 높은 수준

* ('08년) 72.8%→('10년)→74.5%→('12년)→74.2%→('16년) 72.5%→('18년) 71.2%

** 베트남 236불, 필리핀 236불, 인도네시아 348불, 중국 493불('19년 기준, 월임금)

- **[산업구조 변화]** 중국 경제가 과거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개편*되며 점진적으로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이동

* '15년부터 서비스업 비중이 제조업 비중을 상회

- **[생산비용 상승]** 중국은 한국보다 토지가격·용수가격 등이 높으며, 10년간 상승세 역시 가파름.

한국·중국의 주요 생산비용 비교

구 분	한 국		중 국	
	'08년	'18년	'08년	'18년
토 지 가 격 (원 / m ²)	261,704	376,901	393,990	721,691
용 수 가 격 (원 / m ³)	302	332	495	783
산업용 전기료(원/kWh)	66	110	115	118

② 한한령 이후 우리기업의 입지 악화

- **[유통업 영업정지]** '16년 사드 사태 이후 고강도 세무조사, 소방 안전점검, 위생점검 및 그에 따른 영업정지로 중국시장에서 철수*

* '17년 이마트, '18년 롯데마트 철수 완료

□ **[시장점유율 하락]** 중국內 반한 정서 및 애국 마케팅의 영향으로
우리기업의 스마트폰, 자동차 등의 중국 시장점유율 하락

- 세계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1위('20년 기준 19%)인 삼성전자의 중국 시장점유율은 매우 낮은* 반면, 자국 브랜드 선호현상에 따라 화웨이, 샤오미 등 중국기업의 시장점유율 급증**

* 우리기업의 중국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16년 4.9% → '20년 1% 미만

** 중국기업의 중국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16년 56.9% → '20년 85.4%

- 친환경 자동차는 중국기업, 프리미엄 자동차는 독일기업이 선전하고 있어, 우리 자동차기업의 시장 입지 악화*

* 우리기업의 중국 자동차시장 점유율: '16년 7.7% → '20년 4.0%

< 참고: 우리기업의 對중국 수출 및 중국 생산법인 매출 동향 >

- **[對중국 수출]** 한한령 이후 한국산 제품에 대한 현지수요 부진 등으로 '20년 對중국 수출액은 '16년 대비 **6.9% 감소**(30개 주요기업 기준)

우리기업의 對중국 수출 추이

(조원, %)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중국 수출액(30개사)	125.8	123.8	131.5	120.9	117.1
전체 수출 중 중국 비중	25.6	22.8	23.3	21.8	22.1

- **[중국 생산법인 매출]** 중국 생산경쟁력 저하, 미·중 무역갈등 등의 영향으로 우리기업 중국법인의 '20년 중국 매출액은 '16년 대비 **27.5% 감소**(113개 주요기업 기준)

우리기업의 중국 생산법인 매출 변동

(조원, %)

구 분	'16년 매출액	'20년 매출액	증감률
삼 성 전 자	24.1	5.3	△77.9
현 대 자 동 차	20.1	6.9	△65.9
현 대 모 비 스	8.9	2.4	△73.3
기 아 자 동 차	9.8	3.6	△63.4
삼성디스플레이	10.8	9.1	△16.1

IV. 우리나라의 對ASEAN 투자 증가요인

- ❖ ASEAN은 노동시장 및 소비시장의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미·중 무역갈등 및 팬데믹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對ASEAN 투자 증가

① 미·중 무역갈등 및 팬데믹 사태에 따른 생산기지 이전

-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우회생산]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관세회피를 위해 중국 외
국가에서의 우회생산 증가**

* '20년 1월 미·중 1단계 무역협정 이후 평균 19%

** 미국 애플사는 '19년부터 기존 중국 생산기지의 최대 30%를 ASEAN으로 이전 추진

- 우리기업은 한한령에 따른 중국 시장점유율 하락과 더불어
對중국 무역구조를 감안, ASEAN으로 생산기지 이전 중
-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 중 중간재가 82.9%를 차지하는 바,
무역갈등에 따라 중국의 한국산 중간재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 감소가 불가피
- 중국과 정치·외교적 긴장관계인 주변국 역시 높은 관세 등을
감안, 베트남, 인도, 태국 등으로 생산기지 이전 중

주요국 생산기지 이전(중국→ASEAN) 사례

본사소재국	기 업	품 목	이전 대상 국가
한 국	삼성전자	스마트폰	베트남/인도
		노트북/데스크탑	베트남
		냉장고	태국
	현대자동차	자동차/자동차부품	베트남
	LG전자	차량용 오디오	베트남
대 만	폭스콘	스마트폰(아이폰)	인도
		노트북	베트남
	페가트론	인터넷 연결장치	인도네시아/베트남
일 본	닌텐도	게임 콘솔	베트남
	리코	프린터	태국

- **[팬데믹 이후 공급처 다변화]** 팬데믹 초기 중국산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다국적기업은 생산기지를 ASEAN으로 다변화하여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 추구

* '20년 2월 현대차·닛산은 중국산 부품 부족으로 생산라인 가동 일시 중단

② 노동시장 및 소비시장의 높은 경쟁력

- **[노동시장]** ASEAN은 제조업 임금이 저렴하며 중위 연령이 31.2세*로 중국 대비 저임의 젊은 노동력 보유

* 국가별 중위 연령: 중국 37.0세, 한국 37.9세, 일본 44.6세, 미국 36.8세

- **[소비시장]** ASEAN은 팬데믹 사태에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성장률*, 두터운 수요층** 등 감안시, 향후 높은 구매력을 가진 거대 소비시장으로 성장 가능

* '20년 경제성장률: 세계 △3.3%, ASEAN 10개국 평균 △2.5%

** ASEAN 인구 중 중산층이 '30년 1.3억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③ ASEAN 각국 정부의 투자 유치 노력

- **[적극적 투자 유치 노력]** 미·중 무역 갈등 및 팬데믹 사태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ASEAN은 경쟁적으로 투자유치정책 도입

- (베트남) 다국적기업의 「차이나 플러스 1」 전략*의 대표 수혜국으로, 투자법 개정을 통해 네거티브 리스트 전환 및 투자혜택 확대

*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대외리스크 경감을 위해 중국 외 다른 국가에 추가 생산기지 건설

- (인도네시아) '20년 고용창출법 제정을 통해 투자가능 업종 확대, 우대업종에 대한 세금 혜택 등 투자환경 개선

- (태국) 법인소득세 감면, 생산설비 수입관세 면제 등의 정책 도입

V. 향후 전망

□ **[세계 해외투자]**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부상한 바, 다국적기업은 소비시장 선점을 위해 중국 투자 지속 전망

- 중국 정부의 소비촉진 정책*에 따라 상하이는 향후 글로벌 소비 중심도시로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함께 고급 소비재 판매를 위한 투자가 증가할 전망

* '21년 4월 중국 정부는 ‘상하이 소비촉진 조치’ 발표

□ **[우리나라 해외투자]** 안정적 공급망 및 수요처 확보를 도모하는 우리기업의 탈중국 현상 가속화 및 ASEAN 투자 증가 전망

- 중국내 경영환경 악화에 따라 현지법인 영업이익률이 하락세*로, 대체 투자처로서 베트남 등 ASEAN**으로 다수의 생산기지 이전 전망

* 중국 현지법인 영업이익률 추이: '16년 4.7% → '19년 2.1%

** ASEAN 현지법인 영업이익률 추이: '16년 2.7% → '19년 3.1%

- 현지시장 진출 목적의 투자 증가세*를 감안할 때, ASEAN은 우리기업의 생산기지 뿐만 아니라 향후 소비시장으로서 역할도 부각 예상

* ASEAN 투자목적 중 현지시장 진출 비중: '16년 62.8% → '20년 72.7%

□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중 무역갈등 및 팬데믹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다국적기업은 생산기지 이전 등 공급망 재편을 본격화할 전망

- 리쇼어링*, 공급망 다각화** 등을 통해 탄력적 공급망 구축 및 지역적 자립성 강화 추진

* 해외로 이전했던 생산기지를 국내 또는 인근 국가로 이전

** 기존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지역 및 공급자 확대

참고 1

우리나라의 對중국 및 對ASEAN 수출 추이(억불, %)

연 도	전체 수출액	중 국		ASEAN	
		수출액	수출의존도	수출액	수출의존도
'05년	2,844	619	21.8	274	9.6
'06년	3,255	695	21.3	321	9.9
'07년	3,715	820	22.1	387	10.4
'08년	4,220	914	21.7	493	11.7
'09년	3,635	867	23.9	410	11.3
'10년	4,664	1,168	25.1	532	11.4
'11년	5,552	1,342	24.2	718	12.9
'12년	5,479	1,343	24.5	791	14.4
'13년	5,596	1,459	26.1	820	14.7
'14년	5,727	1,453	25.4	846	14.8
'15년	5,268	1,371	26.0	748	14.2
'16년	4,954	1,244	25.1	745	15.0
'17년	5,737	1,421	24.8	952	16.6
'18년	6,049	1,621	26.8	1,001	16.6
'19년	5,422	1,362	25.1	951	17.5
'20년	5,125	1,326	25.9	890	17.4

참고 2

'18~'20년 주요국 FDI 유입 추이(백만불)

구	분	'18년		'19년		'20년	
		유입액	순위	유입액	순위	유입액	순위
미	국	223,401	1	261,412	1	156,321	1
중	국	138,305	2	141,225	2	149,342	2
홍	콩	104,246	3	73,714	5	119,229	3
싱가포르		75,969	5	114,162	3	90,562	4
인도		42,156	11	50,558	8	64,062	5
룩셈부르크		△16,757	-	14,792	25	62,145	6
버지니아섬		34,390	15	39,103	13	39,620	7
독일		62,073	8	54,063	7	35,651	8
아일랜드		△16,096	-	81,104	4	33,424	9
멕시코		33,730	16	34,097	14	29,079	10
스웨덴		4,221	48	10,112	32	26,109	11
브라질		59,802	9	65,386	6	24,778	12
이스라엘		21,515	18	19,047	20	24,758	13
캐나다		38,240	12	47,837	10	23,823	14
케이만섬		20,681	19	28,165	17	23,621	15
호주		68,477	6	39,224	12	20,146	16
아랍에미리트		10,385	30	17,875	22	19,884	17
영국		65,299	7	45,454	11	19,724	18
인도네시아		20,563	20	23,883	19	18,581	19
프랑스		38,185	13	33,965	15	17,932	20
베트남		15,500	22	16,120	24	15,800	21
일본		9,256	31	14,552	26	10,254	22
폴란드		15,996	21	10,853	31	10,080	23
러시아		13,228	23	32,076	16	9,676	24
한국		12,183	25	9,634	34	9,224	25 ^{주)}
스페인		53,495	10	8,515	38	8,928	26
대만		7,114	36	8,240	39	8,802	27
벨기에		30,821	17	2,886	62	8,437	28
칠레		7,742	33	12,525	29	8,386	29
터키		12,840	24	9,290	35	7,880	30

주) 버지니아섬, 케이만섬 등 편의치적국 제외시 '20년 기준 세계 23위 FDI 유입국